

‘차석공간’- 연변의 브랜드 명소로 키우고 싶다

건강차 한잔과 함께하는 수석문화 체험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천년의 이야기가 깃들어있을 것 같은 돌의 역사에 귀 기울여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매우 기분 좋은 수석문화 체험이 아닐까.

연길시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왕흥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잊지 못할 문화공간의 자리를 대신해줄 ‘차석공간’(茶石空间)이 연길시에서 선보였다. ‘차석공간’이란 차와 수석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업소명이다. 연변기보 공예미술유한회사에서 지난 5월 6일 연길시에서 연변 최초의 이색 카페인 ‘차석공간’을 오픈한 것이다. 연길시 천지로 연결해관 부근에 자

리잡고 있는 ‘차석공간’에는 연변 당지에서 나는 오석을 비롯해 모양과 형태가 기이한 각가지 기석들 수백점이 진열되어있으며 마노, 진주 등으로 만든 진품 악세사리들도 있다.

수석은 형태, 질, 색의 순으로 좋은 수석의 기준이 매겨지는데 ‘차석공간’에 들어서면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연변 당지에서 나는 반들반들 윤기 흐르는 오석이 제일 처음 눈에 띈다. 연변의 오석은 형태도 좋고 색깔도 좋은데 ‘차석공간’에서 만나보는 사람 얼굴 모양 수석과 돌고래 모양의 수석 등 신동하도 닮은 형상석들은 놀라움을 넘어 감탄과 경이로움까지 불러일으킨다.



‘차석공간’을 운영하는 연변기보공예미술유한회사 사장 박건우씨에 따르면 이같은 연변 당지 오석들은 수석사랑에 깊이 빠진 가까운 지인이 지난 십수년간 연변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 발견하고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연변 당지에서 난 수석들이기 때문에 높은 예술적 가치와 소장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석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탐구하고 싶은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수석의 매력에 빠져보고 문화적인 분

위기를 느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건우씨는 ‘차석공간’이 아직 개업한 지 한달도 채 안 되었지만 매일 찾아드는 손님들로 초만원을 이룬다고 반색했다.

“혼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즐기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기고 향수해야 하는 것이 또한 수석문화이기도 하지요...” 박건우씨는 ‘차석공간’에 진열된 수많은 수석들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차석공간’은 연변에서 가장 최초로 다양한 수석과 갖가지 양생차를 일체화한 특색 있는 레저 휴식 공간이다. 9개의 아늑한 환경의 안온한 특산물 꾸미친 ‘차석공간’은 시민들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차와 수석문화의 만남을 주도하는 명소로 거듭난다는 당찬 목표까지 내세웠다고 박건우씨는 고백했다.

알고 보면 ‘차석공간’의 이색적인 점은 수석뿐만이 아니다. 장백산지역에서 나는 질 좋은 약재차들을 손님들에게 선보이기 때문이다. 오미자, 구기자 등 일반적인 종약재들을 리용한 건강차들은 물론 송이, 더덕, 도라지, 인삼 등 진귀한 약재들을 리용한 다양한 전통차와 양생차, 건강차들도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건우씨는 “‘차석공간’은 연변의 지역문화와 민속문화를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휴식과 문화적인 상호 교류와 공유의 좋은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차석공간’을 수석뿐만 아니라 연변의 미술, 서예, 영상 등 다양한 문화와 이미지를 만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연길시, 나아가 연변의 브랜드 문화명소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상근기자

우리 나라 서류문헌 세가지 유네스코에 등재

지금까지 포함 17 개



일전 유네스코에서 열린 아태지구 위원회 제 10 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나라 국가서류문헌에서 신청한 ‘성도 옛 차집 관련 서류’, ‘취주 천년 종씨 서류’, ‘더거 인경원 원장조판(院藏雕版)’ 등 세가지 서류문헌이 성공적으로 《세계기억 아태지구 명록》에 등재되었다.

입선된 ‘성도 옛 차집 관련 서류’에는 1903년부터 1949년까지의 성도 옛 차집 관련 서류문헌자료가 수록되었는데 초고, 업무용 문건, 도표, 사진, 인쇄품 포함 6,345 점이 들어있다. 이 서류문헌은 옛 차집의 일상경영, 업무관리, 상품무역, 문화교류 등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바 성도를 대표로 하는 중국 근현대 도시의 경제, 사회와 문화력사 발전을 연구하는 진귀한 사료이다.

‘취주 천년 종씨 서류’는 취주 민간사회에서 천년을 이어져내려온 종씨 기원, 인거환경, 족규(族規)가훈, 명인전기, 재산소속, 예술문 저술 등 민간 서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서류는 포함 427 부, 2,235 책인데 송, 원, 명, 청, 민국 시기의 종씨 서류를 포함하며 ‘한자

문화권’ 나라와 지구의 종씨 문화를 연구하는 진귀한 서류이다.

‘더거 인경원’은 1729년에 설립되었는데 우리 나라 장족 집거구 3대 인경원 가운데의 하나이다. 더거 인경원의 조판인쇄 공예 기술은 과정이 복잡하고 분공이 세밀하며 관리가 엄격해 인류 조판인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이곳에는 안정하게 보존된 조판서류가 32만 5,520 개 소장되어있는데 주요하게 18세기부터 20세기 중기 사이에 만들어진 고인판과 화판들로서 전통문화의 여러 면의 내용이 새겨진 중요한 장문 경전 문헌들이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억유산 등 6가지가 포함된다. ‘세계기억 종목’은 유네스코가 1992년에 가동한 문헌 보호 종목으로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리용을 추진하고 문헌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2년에 한번씩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번에 입선된 3개 종목을 포함해 지금까지 포함 17개 서류문헌 유산이 《세계기억 아태지구 명록》에 등재되었다.

/ 인민넷 - 조문판



무형문화유산들, 문화관광 바람 타고 재조명된다

자연을 벗 삼는 농가 민박이 한때 우리 나라 농촌 관광의 대명사로 꼽혔다. 잇달아 농촌진흥 전략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농촌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체험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며 농경 문명도 다시 활력을 발하고 있다.

■ 고향 추억에 편의성 더한 시골 민박

32년간 심수에서 지낸 삶을 살아온 유지량(66세)은 고향인 강서성 무원현 석문 자연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귀향한 유지량은 석문촌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하얀 벽, 검푸른 기와에 담장을 높이 두른 취주식 민가의 전형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여기에 통창, 엘레베이터 등 현대 건축 요소를 도입했다.

“전통 가옥에 현대적 요소를 더해 고향의 추억을 되새기는 한편 편안한 숙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지량은 “예전에는 멀리 외지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지만 이제는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며 “덕분에 어딜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하천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꿔온 농촌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석문촌을 찾는 각지 관광객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석문촌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무원현 황령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지난해 유네스코관광기구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관광 마을’로 선정되었다. 덕분에 약 600년



▲ 강서성 무원현 황령관광지에서 가을철 고추 말리기 체험을 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

의 역사를 지닌 애상고촌의 전통 민속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황령의 가을철 농작물 말리기, 대규모 뽕동 행렬, 떡도장 찍기... 황령 천가거리의 칠판에는 그날의 민속·향토 문화 프로그램 일정이 빼곡이 적혀 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원의 향토 문화를 근거리에서 감상하거나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민속 체험 등 활동에 힘입어 선산촌 관광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 진흥의 발걸음이 가속화되었다. 몇년전만 해도 선산촌에는 단 20여명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주인구가 약 170명으로 대폭 늘었다. 현지 관계자는 “지난해 마을 1인당 가처분소득이 3만원 이상으로

2015년의 11배에 육박한다.”고 소개했다.

■ 역사를 이어온 무형문화유산에 ‘새 생명’ 불어넣어

리경촌은 무원현에서 가장 먼저 농촌 관광을 시작한 관광지이다. 마을 입구에서 개울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짙은 옥색향기 코를 자극한다. 차제조사가 대나무 바구니에서 청록색의 신선한 차잎을 가마에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뒤적뒤적 뒤는 장면은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시내를 넘어 취주 고택에서는 ‘90후’인 리서문이 칼로 대나무 작품을 조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취주 대나

무조각 대표 전승자인 리서문은 10대부터 대나무조각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대나무조각 제품 소비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리서문의 설명이다.

황령촌에 들어서니 8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갑로’ 종이우산이 눈에 띈다. 무원 농촌의 고풍스러운 랑만이 담긴 ‘갑로’ 종이우산은 많은 관광객의 필수 쇼핑 아이템이다.

무원에 살고 있는 조문건은 수년전 황령촌에 종이우산 전문점을 오픈했다. 조문건은 이곳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갑로’ 종이우산 제작 기술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그는 말을 땀 하루에 100여개가 판매된다며 소득이 온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몇 배 더 많다고 말했다.

질정강 사씨 양조기법 대표 전승자인 사영홍은 무원현 석문촌, 리경촌, 황령촌 등 관광지에 매장을 열었다. 무형문화유산 양조 기법을 혁신·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양조 기법을 도입해 만들어낸 그의 새로운 주류 제품은 많은 관광객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영홍은 각지 관광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매장을 마을에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무원현은 무형문화유산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촌 관광에 매력을 더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무원현을 찾은 관광객이 연인수로 79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 신화넷



삼성퇴박물관 신관 첫 특별전, 청동기 160여점 전시

삼성퇴(三星堆) 박물관 신관에서 ‘길금주사(吉金铸史): 청동기 속의 고대 중국’ 전시회가 일전 개막되었다. 국가박물관 소장품인 1급 유물 31점을 포함한 160여점의 청동기 유물이 공개되며 청동기의 조형미와 장식미를 보여준 동시에 우리 나라 고대 청동기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 전면적으로 선보였다.

우리 나라 고대에 청동기는 ‘금(金)’ 또는 ‘좋은 쇠’라는 뜻의 ‘길금(吉金)’으로 불리며 초기 문명과 거의 함께 등장했는데 초기 중화문명의 기원과 발전, 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표적 증거이다.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인 천망궐(天亡簋)은 서주 초기 유물에서 출토된 것으로 모양이 정교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며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삼성퇴 박물관 학술연구부 관계자는 “천망궐은 중대한 역사사건이 기록된 명

문(铭文)이 새겨진 몇점의 서주 초기 청동기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사적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 내부의 명문에는 주조자 천망이 주무왕을 도와 성대한 규모의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박물관과 삼성퇴박물관이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7월 삼성퇴박물관 신관이 개관된 후 열리는 첫 특별전이다.



▲ 삼성퇴박물관내의 ‘길금주사(吉金铸史): 청동기 속의 고대 중국’ 전시실